

새누리 새 대표에 황우여 의원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 선출

친박계 대거 지도부 입성

대선 공정관리 최대 과제

올해 대선을 이끌어갈 새누리당 신임 대표에 친박(親朴·친박근혜) 성향의 5선 황우여 의원이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 후보 등 4명이 뽑혔다.

1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투표 결과, 황우여 후보가 3만272표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어 이혜훈(1만4454표)·심재철(1만1500표)·정우택(1만1205표)·유기준(9782표)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홍문종(8524표)·원유철(4755표)·김경안(3863표)·김태훈(3792표) 후보는 새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친박근혜(친박)계는 황우여·이혜훈·정우택·유기준 후보 등 4명이, 비박근혜(비박)계는 심재철 후보가 새 지도부에 들어갔다. 새 지도부에 친박 세력이 대거 입성하면서 이들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친이계 등 비박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새누리당이 인구 원내대표가 선출된데 이어 황우여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박근혜 정권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당 인파의 분석이다. 신임 황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새



새누리당 황우여(가운데) 새 대표가 1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당 대표직을 연속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 기쁨보단 무한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낀다”며 “올해 연말 경선을 재창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선당후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후보들이 한 약속도 잘 받들어서 제가 약속을 지키겠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 즉 국민 속으로 들어가 아픔을 함께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겠다”며 “국민의 소원이 곧 새누리당의 소원이 되도록 맞춤형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오는 8월 말~9월 초개로 예정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한 관리와 흥행이 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당원과 청년,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혼합 방식(1인1표)으로 진행됐다. 15일 대의원 투표에는 선거인단 8934명이 참석했다. 전날 실시된 현장 투표에선 당원·청년 선거인단 20만6182명 중 14.1%인 2만9121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의 투표율 25.9%보다 11.8% 포인트 낮은 수치여서, 대표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여론조사는 13~14일 전국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민중통합당 지난 14일 6·9 전당대회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면서 경선전이 본격화됐다. 후보자는 이혜훈·김한길·강기정·우상호·이종걸·조정식·추미애·문용식 등 모두 8명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 가운데 이혜찬·김한길 당선자를 2강, 강·우·이·조·추 후보를 5중, 문 후보는 1약으로 각각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들 가운데 최다 득표자는 당대표가 되고 차순위 5명이 최고위원직을 맡게 된다.

우선, ‘포스트 한명숙’의 선상 자리는 이혜찬·김한길 당선자가 다룰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정권교체를 이끈 당내 대표적 전라각로 통한다. 이 당선자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탄탄한 지지를, 계파가 없는 김 당선자는 비노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두 후보는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15일 한 라디오 방송

에서 ‘이박연(이혜찬-박지원 연대)’을 겨냥해 “패권적 계파주의를 더 노골화하는 밀실합의가 실망을 주고 있다”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각본대로 안성이 되면 많은 국민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이해관계가 아니고 정권교체를 위해 서로 간에 대한 헌신하는 자세로 역할을 분담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486그룹을 대표하는 우상호 후보, 순화규계의 조정식 후보, 정세균계의 지지를 받는 강기정 후보 간의 순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동영계의 이종걸 후보와 마강 2시간을 앞두고 등록한 유일한 여성 추미애 후보도 다크호스로 평가된다. 당의 모바일 경선을 기획한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은 과란을 꾸꾸고 있다. 경선의 최대변수는 후보자 간 합종

■민중통합당 지도부 경선 출마자

후보(나이)	선수	주요경력
이혜찬(60)	6선	국무총리
김한길(59)	4선	문화관광부 장관
이종걸(55)	4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추미애(54)	4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
조정식(49)	3선	당 원내대변인
강기정(48)	3선	당 대표 비서실장
우상호(50)	재선	당 전략홍보본부장
문용식(53)	원외	당 인터넷 소통위원

연횡이다. 1인2표제인 만큼 각 계파에서 전략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한 표씩 던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노 후보 2 연대도 관심거리다.

후보 8인은 오는 17일 텔레비전 방송 합동토론회를 거쳐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시민들을 향해 정견을 전달하게 된다.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합한 결과는 다음달 9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비대위원장 포함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

총선패배 ‘자성’ 대선승리 ‘결의’

민중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협의회에서 4·11 총선 패배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연말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먼저 박 비대위원장이 운을 폈다. 그는 인사말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9명으로 사실상 지방행정을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것은 국민은 우리에게 정권을 줄 준비를 했었지만 준비가 미흡해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점”이라고 사과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후 이를 의식한 듯 시장·도지사들도 각자 한마디씩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당의 선거전략과 노선에 고언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선 이번 총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중도계승·중도지역(충청, 강원)·중도세대(40~50대)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4·11 총선을 보면 우리는 유효기간이 지난 반MB 정서에 올린 했다. 대선에선 반MB 정서에 매달려 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측은 탈MB를 했고, 탈한나라랑 했다”며 “지난 총선은 북에서는 남을 공격하는데, 북에 대응하지 않고 일본을 공격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민주당은 MB를 공격했다. 이것이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기대 못 했던 결과를 냈지만,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으면 더 큰 승리가 가

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당도 국민에서 기대가 많았는데, 경남·부산에서 1석밖에 확보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4·11 총선에서 9대0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게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당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 많이 부족했다”며 “야권이 얻고 있는 140석은 국민이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더욱 분발해서 대한민국의 대안 집권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진보 당권과 “비대위 인정못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김선동 의원 원내대표 검토

통합진보당 비당권과 강기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정식 가동하자 당권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불합의를 명확히 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당권파의 핵심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원 등록을 마치면서 양계파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강기갑 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 구 당권파의 반발과 관련해 “당권과 인사가 비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권

파가 반발하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지난주말 중앙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당원에 대해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당권파에 대해 강은전락을 동시에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권과 핵심관계자는 이날 “현재 당원들은 비대위를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며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와 당원에 대한 명예회복 없이는 비대위에 합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위원

회 의결 등 그 간의 과정에 대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비대위를 추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권파는 나아가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앉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권파인 김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 비당권파인 강기갑 위원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당초 지난 2일 워크숍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었으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이 대통령-수치 만남

“민주주의는 중요”

이명박 대통령과 미안나의 민주화를 이끈 이상산 수치 여사는 15일 “민주주의는 희생할 수 없는 가치”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미안나는 국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수도 네퍼도에서 태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수치 여사와 면담을 위해 전용기로 약 1시간 10분가량을 이동해 450km 남쪽의 양근에 이날 이른 오전 도착했다. 수치 여사가 21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지난 4월 선거에서 야당을 이끌고 당선된 인물이지만 미안나 정부도 이들의 만남을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내 및 시외선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소분 손님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복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 보종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복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230만원(21억)
- 보종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 임대보증금 1억
-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약600평(31억)
- 임대보증금 약5억 월1,500만원

토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능,시영영업종)
- (상무지구)1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기 사거리코너)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능)
-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영업종)
- (화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 (동림지구)중주거지 500㎡-하남 간대로변(4,470㎡(약1,352평) -평당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우매니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921 (상무지구 이바동 김지자 1층)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상무지구 건물매매

-대 지 : 200평

-연면적 : 150평

-보증금 : 1억5천만원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매매금액 : 29억원

평등공판 부지매매

-대 지 : 3000평

-분할가능

-매매가 상담후 결정

침단산단 공장매매

-대 지 : 1000평

-공 장 : 3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할>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할>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매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매>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정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충장로(이프위) 대2708㎡, 건18171㎡ 감정가 310억 최저가 138억9천	영양산호(근린시설) 대777㎡, 건1152㎡ 감정가 9억9천 최저가 5억1천	화순도곡(병원직할) 대3234㎡, 건24280㎡ 감정가 42억9천 최저가 18억9천	동명동(고시원) 대1080㎡, 건25555㎡ 감정가 22억9천 최저가 14억4천	신안동(스포츠타워) 대3026㎡, 건5984㎡ 감정가 69억3천 최저가 31억	치평동(유흥주점) 대164㎡, 건2944㎡ 감정가 19억8천 최저가 15억9천	중흥동(병원직할) 대2075㎡, 건12510㎡ 감정가 124억7천 최저가 44억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강원정선(관광호텔) ▶ 대지 993평 ▶ 건물 4989평 ▶ 감정가격 85억 ▶ 매매가격 30억(협의후결정)	▶ 대전(웨딩홀) ▶ 대지 958평 ▶ 건물 5346평 ▶ 감정가격 222억9천 ▶ 매매가격 130억(협의후결정)	▶ 광주 쌍암동(유흥시설) ▶ 대지 1520평 ▶ 건물944평 ▶ 감정가격 89억7천 ▶ 매매가 40억(협의후결정)	▶ 담양금성(공장) ▶ 대지 1482평 ▶ 건물 2399평 ▶ 감정가격 7억 1600만 ▶ 매매가 5억2천 (협의후결정)
▶ 용봉동(하미스포텍)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곡성성곡 공장 ▶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 감정가 44억3천 ▶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정가 135억 ▶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 순천 조래동(주차빌딩) ▶ 대지 646평 ▶ 건물 1708평 ▶ 감정가 43억 ▶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리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매/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소재지	매/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소재지	매/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수원동	대476,21700	10977	795천	2층근린	수원동	대21,2999	2917	198천	3층상가	수원동	대7751,23989	45	25억천	4층상가
금동	대499,212854	129	6억천	5층근린	순천시	대11559,23948	2894	28억천	4층유스스쿨	근안동	대3596,21871	18	9억5천	5층상가
곡성읍	대1837,21776	49	1억8천	2층다가구	함평군	대819,21283	994	9억천	3층모텔,목욕탕	목포시	대6796,214615	24	13억천	민중주택
신안동	대3026,25984	69	2억4천	3층골프	대1782,23662	294	1억4천	주유소	김제시	대3273,23189	10	9억4천	2층상가	
중흥동	대2075,212510	124	4억	10층근린	대1022,23403	1893	8억2천	7층주거	무안군	대11028,23868	49	27억	3층상가	
월산동	대1090,21113	20	1억4천	2층근린	대777,21152	992	5억천	2층골프장	영광시	대4415,21651	7	9억천	4층	
월산동	대261,21404	39	1억9천	3층근린	대1079,21544	794	4억천	근린시설	화순시	대6536,212042	9	9억9천	6층상가	
여수시	대252,21488	16	5억8천	9층근린	대1570,21474	76	76억천	43억	4.5층근린상가	함평군	대5173,212776	6	9억9천	민중주택
충장로	대2708,218171	310	138억	5층근린	대56,2501	3	9억천	2억천	4층근린상가	영광시	대5757,21669	13	9억9천	민중주택
화순도곡	대3234,24280	42	18억	4층목욕탕	대867,21222	4	4억천	1억9천	3층모텔	장성군	대3398,21773	15	10억천	2층상가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박미림팀장 010-9900-3002 근린주택 박미림팀장 010-9900-3002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광주대일(지하)호프,복식60평원통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마타1층1칸

대출+보증금공제후 실수익가 2천만원 (H.010-6654-6888)